

치과위생사의 유머에 관한 연구

윤영숙

동주대학 치위생과

색인: 유머가치, 출처, 형태, 적용시기

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복잡해진 병원구조로 인해 더욱 세분화된 환자관리업무와 환자 수의 증가 등으로 치과위생사들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는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치과위생사가 긴장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업무에 의욕을 잃게 되면 환자와 다른 의료인들과 의사소통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그들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효율적으로 환자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치과위생사가 유능한 전문직 의료인으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장애를 받게 된다²⁾.

또한 환자들이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인간관계에서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와 갈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치과위생사들은 그들이 의료진과 더욱 자유로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들의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³⁾.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긴장완화,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재미있고 즐겁게 근무하기 위한 대처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들간의 거리감을 줄이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병원환경을 편안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우습다고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을 Pasquali는 유머라고 하였으며, 유머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적 상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⁴⁾.

국외의 유머 관련 연구는 스트레스, 질병, 상실 등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 대처기전으로 유머의 사용을 제시하였다^{5), 6)}.

국내에서는 유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비디오를 사용한 유머중재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⁷⁾. 서³⁾는 내·외과병동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유머감각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였는데 대상자의 78.8%에서 유머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때 적당한 사람은 간호사의 45.9%), 의사(25.2%)순으로 간호사의 50%이상에서 유머감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치과임상현장에서도 치과위생사가 직접적으로 유머와 위트를 이용한 유머중재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부적절한 유머는 감정에 상처를 주고 불안, 적대감, 당혹스러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머를 환자관리중재로 사용하기 전에 주의 깊은 사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유머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유머의 적용시기, 유머에 대한 수용정도, 유머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환자관리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절하게 유머를 사용하는 것은 치과위생사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 포함하여 환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서 유머 제공자와 유머 수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가 현장에서 유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유머를 사용하는 치과위생사와 유머를 사용하지 않는 치과위생사의 특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치과위생사의 유머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김⁸⁾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치과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머의 유형, 사용하는 이유 및 시기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치료 의사소통 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유머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가치를 파악한다.
- 2) 스트레스와 유머가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3) 유머의 출처에 따른 유머가치를 파악한다.
- 4) 유머 사용빈도에 따른 유머가치를 파악한다.
- 5) 사용하는 유머유형에 따른 유머가치를 파악한다.
- 6) 유머를 사용하는 때에 따른 유머가치를 파악한다.

1.3. 용어 정의

1) 유머

(1) 이론적 정의

유머는 개인적인 특성을 갖는 과정이며 생각, 사건, 상황 등에서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평가하는 인지적, 정신적 기능으로 정서상태를 변화시켜서 긴장을 풀게 하며 이러한 정서상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⁹⁾.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즐겁게 근무하기 위해서 환자 및 동료에게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로 치과위생사가 즐기며 재미있다고 보고하는 모든 내용을 의미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의 근접 모집단은 2002년 현재 부산시내 치과병의원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08명을 임의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무응답 및 오기로

기록된 15부를 제외한 총 193부가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김⁸⁾이 제시한 유머에 관한 측정설문을 이용하여, 유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 9문항, 「스트레스 정도」 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유머의 인지적 영역중 「유머이해」는 '유머를 느끼는 때' 7문항, '유머의 출처' 3문항, '유머 사용시 방해요인' 10문항으로, 「유머효과」는 '유머가치'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행동적 영역의 「유머 사용」에는 '유머를 사용하는 때' 5문항, '사용하는 유머유형' 4문항, '유머 사용빈도' 1문항으로 총 9영역의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조화된 질문지의 척도는 3가지로 일반적 특성과 유머 사용빈도는 명목척도로 하였으며, 스트레스 정도는 시각적 상사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s)를 사용하였다. 유머의 출처, 사용하는 유머유형 및 유머를 사용하는 때는 2분 명목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유머를 느끼는 때, 유머사용시 방해요인 및 유머가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잘 모르겠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유머가치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0.8998$, 유머를 느끼는 때의 Cronbach's $\alpha=0.6964$, 유머 사용시 방해요인의 Cronbach's $\alpha=0.8309$ 이었다.

2.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

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가치 비교는 ANOVA & t-test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ANOVA 분석의 결과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해서 사후 검증하였다.

- 2) 스트레스 정도와 유머가치간의 상관성은 Pearson 적률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3) 유머 사용빈도에 따른 유머가치는 ANOVA를 사용하였고, ANOVA 분석의 결과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해서 사후 검증하였다.
- 4) 유머의 출처, 사용하는 유머유형, 유머를 사용하는 때에 따른 유머가치는 t-test로 검증하였다.

2.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부산시내 치과병의원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3. 연구성적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머가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 총 임상경력, 직위, 현 근무병동, 형제·자매 수, 부모 생존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의 백분율과 유머가치의 평균,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가치의 비교분석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20대가 82.5%(160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16.5%(32명), 40대 이상은 1%(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머가치의 평균점수는 20대 28.54점, 30대 35.94점, 40대 이상이 45.50점으로 연령에 따른 유머가치 점수는 연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이를 Duncan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40대 이상의 연령군이 다른 연령에 비해 유머가치 점수가 높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80.4%(156명)로 기혼 19.6%(38명)보다 많았으나, 유머가치의 평균점수는 미혼이 28.7점, 기혼이 34.82점으로 기혼이 높았으며, 결혼상태에 따른 유머가치 점수는 결혼상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종교는 무교 51%(99명), 불교 29.4%(57명), 개신교 8.8%(17명), 천주교 7.2%(14명), 기타 3.6%(7명) 순이었고, 유머가치의 평균점수는 개신교 34.47점, 불교 30.61점, 천주교 30.21점, 무교 29.02점, 기타 25.86점 순이었다.

교육정도는 3년제 대학졸업 78.4%(152명), 2년제 대학졸업 11.9%(23명), 대학원 재학 및 졸업 8.7%(17명), 4년제 대학졸업 1%(2명) 순이었고, 유머가치의 평균점수는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40.71점, 2년제 대학졸업이 35.65점, 4년제 대학졸업이 34.50점, 3년제 대학졸업이 27.81점으로 학력에 따른 유머가치 점수는 학력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이를 Duncan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 3년 미만이 51%(99명), 3~6년이 29.4%(57명), 6~9년과 9년 이상은 각각 9.8%(19명)로 3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유머가치의 평균점수는 6~9년이 39.53점, 9년 이상이 33.84점, 3~6년이 28.81점, 3년 미만이 28점 순으로 6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유머가치 점수가 높았으며, 임상경력에 따른 유머가치 점수는 임상경력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를 Duncan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 치과위생사 76.8%(149명), 치과운영 실장 9.8%(19명), 보건직 공무원 9.3%(18명), 치과 코디네이터 4.1%(8명)로 대부분이 일

반 치과위생사였다. 유머가치의 평균점수는 보건직 공무원 38.99점, 치과 코디네이터 32.13점, 일반 치과위생사 29.33점, 치과운영 실장 26.16점으로 직위에 따른 유머가치 점수는 직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이를 Duncan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보건직 공무원이 다른 군에 비해 유머가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장소는 치과병원이 73.7%(143명), 치과 의원이 15.5%(30명), 대학병원이 5.7%(11명), 보건소 5.1%(10명) 순이었고 유머가치의 평균점수는 대학병원 38.73점, 보건소 38.60점, 치과 의원 30.60점, 치과병원 28.52점 순으로 치과병·의원에 근무하는 군이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보다 유머가치점수가 낮았으며, 근무장소에 따른 유머가치 점수는 근무장소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이를 Duncan test로 사후검정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91.2%(177명), 혼자인 경우는 8.8%(17명)이었으며, 유머가치의 평균점수는 혼자인 경우 30.47점,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29.88점으로 혼자인 군이 형제·자매가 있는 군보다 유머가치 점수가 높았다.

부모 생존여부는 부모 모두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80.9%(157명)로 가장 많았고 모 생존이 12.9%(25명), 부 생존과 부모 모두 사망은 각각 3.1%(6명) 순이었으며, 유머가치의 평균점수는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가 40점, 부모 모두 생존이 29.99점, 모 생존이 29.04점, 부 생존이 22.17점으로 부모 모두 사망한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머가치 점수가 높아 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유머가치 점수는 부모 생존여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4$). 이를 Duncan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총 임상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가치

(N = 194)

일반적 특성	구분	도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P값	Duncan Grouping
연령	40세 이상	2(1.0)	45.50±0.71	11.44	.000**	A
	30~39세	32(16.5)	35.94±9.79			AB
	20~29세	160(82.5)	28.54±9.14			B
결혼상태	미혼	156(80.4)	28.75±9.36	-3.556	.000**	
	기혼	38(19.6)	34.82±9.73			
종교	무교	99(51.0)	29.02±9.54	1.55	.191	
	개신교	17(8.8)	34.47±8.33			
	천주교	14(7.2)	30.21±9.81			
	불교	57(29.4)	30.61±10.28			
	기타	7(3.6)	25.86±8.43			
교육정도	2년제 대학 졸업	23(11.9)	35.65±10.01	14.83	.000**	
	3년제 대학 졸업	152(78.4)	27.81±8.86			
	4년제 대학 졸업	2(1.0)	34.50±13.44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7(8.7)	40.71±5.69			
총임상경력	9년 이상	19(9.8)	33.84±9.48	9.99	.001**	
	6~9년 미만	19(9.8)	39.53±7.71			
	3~6년 미만	57(29.4)	28.81±9.43			
	3년 미만	99(51.0)	28.00±9.06			
직위	일반 치과위생사	149(76.8)	29.33±9.46	5.83	.001**	A
	치과 코디네이터	8(4.1)	32.13±10.92			A
	치과운영 실장	19(9.8)	26.16±8.66			A
	보건직 공무원	18(9.3)	38.99±8.49			B
근무장소	치과의원	30(15.5)	30.6±10.08	7.39	.000**	
	치과병원	143(73.7)	28.52±9.42			
	대학병원	11(5.7)	38.73±7.46			
	보건소	10(5.1)	38.60±4.65			
형제·자매수 (자신포함)	1명	17(8.8)	30.47±8.49	.236	.814	
	2명 이상	177(91.2)	29.88±9.84			
부모 생존여부	부모 모두 생존	157(80.9)	29.99±9.86	3.65	.014*	
	부 생존	6(3.1)	22.17±5.53			
	모 생존	25(12.9)	29.04±8.57			
	부모 모두 사망	6(3.1)	40.00±5.22			

*p<0.5, **p<.01

표 2. 스트레스와 유머가치의 비 (N=194)

변수	평균	표준편차	r	P값
스트레스	4.88	2.21	.019	.791
유머가치	29.94	9.71		

경력, 직위, 근무장소, 부모 생존여부간에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스트레스와 유머가치

스트레스와 유머가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평소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점수는 최저 0점, 최고 10점인데,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는 4.88점이었다. 그리고 유머가치는 최저 11점, 최고 55점인데, 본 연구대상자의 유머가치 점수는 29.94점으로, 스트레스와 유머가치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3. 유머의 출처와 유머가치

유머의 출처에 따른 유머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유머의 출처는 “책이나 대중매체에서 따온다”에서 “예”가 34.66점, “아니오”가 26.51점으로 유머가치간에 유의한 차이

표 3. 유머의 출처에 따른 유머가치 (N=194)

		평균±표준편차	t	P값
책/대중매체	예	34.66±10.02	-6.32	.000*
	아니오	26.51±7.83		
대화	예	38.35±8.16	-12.05	.000*
	아니오	25.12±6.83		
일상생활	예	36.58±8.85	-10.33	.000*
	아니오	24.87±6.91		

*p<.01

가 있었다(p=.000)

그리고 “대화에서 따온다”에서 “예”가 38.35점, “아니오”가 25.12점으로 유머가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일상생활에서 따온다”에서는 “예”가 36.58점, “아니오”가 24.87점으로 유머가치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즉 유머를 책이나 대중매체에서 따오는 경우와 대화 및 일상생활에서 따오는 경우 모두 유머가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4. 유머 사용빈도와 유머가치

유머 사용빈도에 따른 유머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ANOVA 검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유머 사용빈도 점수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9.65점, “1~3번 사용”이 30.38점, “4~6번 사용”이 30.35점, “7~9번 사용”이 28.67점, “10번 이상 사용”이 25.33점으로 유머가치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5. 사용하는 유머유형과 유머가치

사용하는 유머유형에 따른 유머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유머유형은 “말장난한다(언어적 유머)”에서 “예”가 25.70점, “아니오”가 34.47점으로 말장난 사용 여부간에

표 4. 유머 사용빈도에 따른 유머가치 (N=194)

유머 사용빈도(횟수)	평균±표준편차	F	P값
10 이상	25.33±10.58	.632	.640
7~9	28.67±11.35		
4~6	30.35±11.02		
1~3	30.38±9.22		
0	29.65±7.45		

표 5. 사용하는 유머유형에 따른 유머가치

(N = 194)

		평균±표준편차	t	P값
말장난	예	25.70±7.28	-7.00	.000*
	아니오	34.47±9.98		
타인 흉내	예	31.90±10.09	2.68	.008*
	아니오	28.21±9.08		
상황에 맞게	예	25.87±7.57	-8.03	.000*
	아니오	35.76±9.52		
전문용어 이용	예	35.18±10.47	6.65	.000*
	아니오	26.58±7.50		

*p<.01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다른 사람을 흉내낸다(상대의 행동, 제스처, 표정 등)”에서도 “예”가 31.90점, “아니오”가 28.21점이었으며, 타인 흉내 여부간에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8). “상황에 적절한 유머를 사용한다”에서 “예”가 25.87점, “아니오”가 35.76점으로 상황에 맞는 유머 사용간에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동료와는 전문용어를 이용한 유머를 사용한다”에서도 “예”가 35.18점, “아니오”가

26.58점으로 나타나 전문용어를 이용한 유머사용간에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즉 말장난을 하는 경우, 타인을 흉내내는 경우, 상황에 맞게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 전문용어를 이용한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유머가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6. 유머를 사용하는 때와 유머가치

유머를 사용하는 때에 따른 유머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

표 6. 유머를 사용하는 때에 따른 유머가치

(N = 194)

		평균±표준편차	t	P값
한가할 때	예	27.76±8.70	-3.75	.000*
	아니오	32.89±10.28		
자신이 지쳐 있을 때	예	32.77±10.32	4.01	.000*
	아니오	27.36±8.38		
긴장된 분위기	예	34.01±10.51	5.37	.000*
	아니오	26.92±7.85		
어색한 분위기	예	30.24±9.77	.325	.745
	아니오	29.78±9.74		
상황에 따라	예	23.98±5.24	-16.03	.000*
	아니오	38.99±7.77		

*p<.01

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이 유머를 사용하는 때는 “한가할 때 사용한다”에서 “예”가 27.76점, “아니오”가 32.89점으로 한가할 때에서 유머 사용 여부간에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자신이 지쳐 있을 때 사용한다”에서 “예”가 32.77점, “아니오”가 27.36점으로 자신이 지쳐 있을 때에서 유머 사용여부간에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그리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사용한다”에서 “예”가 34.01점, “아니오”가 26.92점으로 긴장된 분위기에서 유머 사용여부간에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어색한 분위기에서 사용한다”에서는 “예”가 30.24점, “아니오”가 29.7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사용한다”에서 “예”가 23.98점, “아니오”가 38.99점으로 나타나 상황에 따른 유머 사용여부간의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즉 한가할 때, 자신이 지쳐 있을 때, 긴장된 분위기일 때,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서 유머가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증괄 및 고인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고에 의해 비롯된 유머와 웃음이 건강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접근법으로 제시되고 있다¹⁰⁾.

유머를 사용하면 카테콜라민, 먼역글로불린, 엔돌핀의 생성을 자극시켜 통증이나 불편감을 감소시키는 생리적 효과가 있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¹¹⁾. 이러한 생리적 효과 외에도 유머는 환자와 가족들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자신의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이며, 기술적으로 유머를 잘 사용하면 말하기 난처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을 부드럽게 하고,

갈등도 더 잘 파악하게 되어 경직되고 딱딱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치료자와 대상자간의 개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¹²⁾. 이는 환자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간호중재의 기본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유머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유머는 또한 고통스러운 느낌을 즉각적으로 피하기 위한 방어기전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³⁾. 사람들은 진단이나 치료에서 오는 과도한 충격을 피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게 되며, 유머는 치료상황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를 줄이고 긴장을 감소시켜 그 상황을 조절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유머를 사용하면 환자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이나 고통을 외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머의 이러한 생리적, 사회·심리적 효과는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 사기 및 생의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친다¹³⁾.

환자관리 실무에서 유머 사용의 의미를 다섯 범주로 분류하여 기술할 수 있는데 첫째, 의료진이 다른 상황과 다른 환자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돕는다. 둘째, 의료진과 환자 사이, 그리고 의료인 자신 사이에서 결합능력을 형성한다. 셋째, 환자의 불안, 우울, 당혹감을 감소시키도록 돕기 위한 효과적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이다. 넷째, 계획되어지고 일상적인 것 또는 기대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순간에 효과를 지속시키도록 만든다는 것이다⁸⁾.

Herth는 노인들이 유머를 어떻게 보는지, 건강상태와 관련된 유머의 정의, 고려사항, 사용에 대해 파악하였는데, 유머를 연속성, 이완, 회복, 자유, 즐거움, 가망의 여섯 범주로 제시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유머의 출처는 우스운 일상생활 경험들, 어린아이들과 동물들의 기괴한 행동들로 확인되어졌고, 나이, 거주지역, 건강수준, 기능적 능력에 따라 유머를 수용하는 정도가 다

양하였으나, 성과는 관련이 없었다¹⁴⁾.

그러므로 치과위생사가 환자나 동료들과 함께 유머와 웃음을 나누는 것은 충분한 치유 가능성을 가진다고 사려되며, 치과위생사들 스스로 유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인식해야겠으며, 자신의 유머정도를 측정해 보고, 유머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머를 치료적 측면에서 사용할 때는 대상자의 기호에 맞게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의 선택이 중요하고, 환자사정이 필수적이며, 환자나 가족과의 신뢰감 형성과 유머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분별있게 사용해야 한다¹⁵⁾. 즉 환자의 인성, 문화, 가족적 배경, 성격, 스트레스 수준, 동통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건강, 연령 그리고 빠른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 치료관계의 강도, 치료자의 유머에 대한 민감성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¹⁶⁾.

본 연구는 유머의 인지적 영역의 '유머가치'를 유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정도」, 인지적 영역의 '유머의 출처', '행동적 영역'의 '유머 사용빈도', '사용하는 유머유형', '유머를 사용하는 때' 등과 비교분석 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임상경력, 직위, 근무장소, 부모 생존여부에 따라 유머가치는 유의한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령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유머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점차적으로 갖추어지면서 삶의 여유를 찾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결혼상태는 기혼에서 미혼보다 유머가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의 경우 미혼보다 인간관계나 생활의 범위가 넓고, 좀더 안정적인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 직위는 보건직공무원에서 유머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임

상현장이 여유로운 곳에 근무할수록 유머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외 교육, 경력, 근무장소, 부모 생존여부가 유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연구들과 일치하였다^{17), 18)}. 강¹⁷⁾은 형제·자매 수는 유머감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스트레스와 유머가치간의 관계는 김⁸⁾의 연구인 간호 실무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머 사용이 효과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치하지 않았다.

유머의 출처는 "일상생활", "대화", "책/대중매체"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머가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 및 생활 속에서 유머가 활발하게 생성되어 전파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¹⁷⁾.

유머 사용빈도에 있어서는 유머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김⁸⁾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아 앞으로 많은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용하는 유머유형, 즉 "타인(특정인물)홍배", "전문용어 이용"을 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유머가치가 높게 나타나, 사용하지 않는 대상자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말장난(언어적 유머)", "상황에 맞는 유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유머가치가 높게 나타나, 사용하는 대상자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가 치과위생사였으므로 그들이 사용하는 유머는 병원과 관련된 전문용어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이¹⁹⁾와 손^{20), 21)}은 유머를 사용하는데 대상자의 배경지식, 경험, 생활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치과위생사 유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치과병원 및 치과위생사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유머를 사용하는 시기는 “자신이 지쳐 있을 때”, “긴장된 분위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유머가치가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치과위생사 자신을 위한 대처 및 긴장된 분위기를 밝게 하고자 할 경우에 많이 사용하므로 치과위생사가 환자의 스트레스나 병원생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머질문지는 효과적인 치료적 의사소통 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유머에 관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치과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머의 유형, 사용하는 시기 및 이유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치료적 의사소통 중재로 적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유머에 관한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2002년 12월 16일에서 2003년 1월 13일까지 임의표출된 표본에 근거하여 선정된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병의원 및 보건소의 치과위생사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9.0을 이용해 기술통계, Cronbach's α ,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 적률상관계수, t-test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p=0.000$), 결혼상태($p=0.000$), 교육정도($p=0.000$),

임상경력($p=0.001$), 직위($p=0.001$), 근무장소($p=0.000$), 부모 생존여부($p=0.014$)에 따라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40세 이상의 집단, 기혼 치과위생사, 보건직 공무원,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 유머가치가 높았다.

2. 스트레스와 유머가치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유머의 출처에 따른 유머가치는 “책/대중매체”($p=0.000$), “대화”($p=0.000$), “일상생활”($p=0.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유머 사용빈도에 따른 유머가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5. 사용하는 유머유형에 따른 유머가치는 “말장난한다”($p=0.000$), “다른 사람을 흉내낸다”($p=0.008$), “상황에 적절한 유머를 사용한다”($p=0.000$), “동료와는 전문용어를 이용한 유머를 사용한다”($p=0.000$)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 유머를 사용하는 시기에 따른 유머가치는 “한가할 때”($p=0.000$), “자신이 지쳐 있을 때”($p=0.000$), “긴장된 분위기 일 때”($p=0.000$), “상황에 따라”($p=0.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유머가치’와 ‘유머를 느끼는 때’, ‘유머 사용시 방해요인’을 치과위생사의 유머를 이해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는 유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지적 영역의 ‘유머출처’, 행동적 영역의 ‘유머유형’ 및 ‘유머 사용시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유머는 상호작용이므로 적절한 유머를 사

용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환자, 보호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머 개념분석을 제안한다.

2.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술로서의 유머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이명하. 임상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논문 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996;8(1):180.
2. 홍복화, 김석범, 강복수. 수술실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분석. 대한보건교육학회지 1996;13(1):52.
3. 서문자, 김금순. 입원환자의 유머감각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993;5(1):72.
4. Pasquali EA. Learning to laugh : humor as therap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1990;28(3):31.
5. Calman K. A study of storytelling, humor and learning in medicine. Clinical Medicine 2001;19(3):227.
6. Dowling JS. Humor: a coping strategy for pediatric patients. Pediatric Nursing 2002;28(2):123.
7. 신현주.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유머 감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8. 김묘성. 한국간호사의 유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9. 김옥희. 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완충제로써 유우머 감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0. 오유진. 유머중재기법이 재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불안, 우울, 유머대처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1. Kimata, Hajime MD. Effect humor on allergen-induced wheal reactions. 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1;285(6):738.
12. Levine J. The Handbook of Humor: Clinical Applications of Psychotherap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s 1996;184(2):139.
13. Simon JM. Humor and its relationship to perceived health, life satisfaction, and moral in older adult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8:190.
14. Herth KA. Humor and the older adult. Applied Nursing Research 1993;6(4):146.
15. Buxman K. Humor in critical care: no joke. AACN Clinical Issues: Advanced Practice in Acute & Critical Care 2000;11(1):120.
16. Sherman KM. Healing with humor. Seminars in Perioperative Nursing 1998;7(2):128.
17. 강문희. 한국 아동의 유우머 발달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18. 강명옥, 박경희. 커뮤니케이션 표현방법으로서의 유머에 관하여. 시각디자인학술지 1998.
19. 이도영. 유머 텍스트의 웃음 유발 장치. 테스트언어학 1999;7:421.
20. 손세모들. 유머로 보는 한국사회. 한민족문화연구 1999a:235.
21. 손세모들. 유머 형성의 원리와 방법. 한양어문 1999b:5.

Abstract

A Study on dental hygienist's humor

Young-Suk Yo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ju College, Busan, 604-715, Korea

Key words: Humor values, Sources & type of humor, Time of using humor expre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an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humor.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6th, 2002 to January 13th, 2003, centering on Busan Dental Hospital & public health service. A total of 193 questionnaires was distributed for the survey.

The result were as following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mor values concerning age($F=11.44$, $p=0.000$), marriage($t=-3.556$, $p=0.000$), education($F=14.83$, $p=0.000$), clinical carrier($F=9.99$, $p=0.001$), status($F=5.83$, $p=0.001$), working place($F=7.39$, $p=0.000$), and living parents($F=3.65$, $p=0.014$). Humor values were higher for over-forties, married dental hygienists, public health service worker and no living parents.
2.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the dental hygienist's humor values.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mor values concerning sources of the dental hygienist's humor. Data related "book/mass media"($t=-6.32$, $p=0.000$), "conversation"($t=-12.05$, $p=0.000$) and "daily life"($t=-10.33$, $p=0.000$) are examples of these sources.
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mor values concerning the dental hygienist's humor degree related frequency of used humor.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mor values concerning the type of humor used. "word humor"($t=-7.00$, $p=0.000$), "imitation"($t=2.68$, $p=0.008$), "adequate situation"($t=-8.03$, $p=0.000$), "technical terms"($t=6.65$, $p=0.000$) pertain to this.
6.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umor values concerning the time of using humor expression. "loose situation"($t=-3.75$, $p=0.000$), "tired situation"($t=4.01$, $p=0.000$), "tense situation"($t=5.37$, $p=0.000$), "adequate situation"($t=-16.03$, $p=0.000$) pertain to this.